

Ahn 2 인터뷰/Interview [한국 옮김 & English Translation]

*오디오에서 글로 옮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체 의미를 잘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Important point of note: The Korean transcription is not exact; I have clarified some of the expressions and omitted repetitive parts. The essential message remains the same.

Person Code: Ahn 2

Interviewer: I

I: 첫번째 질문은요, 6.25 때 몇살이었고요 그 당시에 어디에 살았어요?

I: The first question is: how old were you during 6.25 and where did you live?

Ahn 2: 6.25 때 한국 나이로 19 살이었어. 그 때 내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제 고향이 진주 인데 난리일때 경상남도 하동에서 교사로 일했어.

Ahn 2: I was 19 during 6.25. I was working as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My hometown is in Jinju; during the war, I was working at HaDong in Southern Kyoungsang Province.

I: 두번째는요, 제일 걱정되는게 뭐였어요?

I: My second question is: what was your biggest concern?

Ahn 2: 전쟁은 말할수 없지. 그 때는 권력이고 재산이고 삼반씩 다 맞은 집안이었어. 그 때 해방되기 전에는 그 집안에서 큰아버지는 교수를 하고 아버지는 도시에서 일하고. 아버지가 가운데인데 우리 아버지는 선비였어. 대문이 12 개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 시조도 읍고. 해방되고 나서 큰아버지가 도지사에서 일하니까 친일파로 몰려서 작은 아버지도 도지사못하게 되고 큰아버지도 군수 못하게 되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감옥사하고. 오빠들도 총독수로 일해서 감옥사하고. 그래도 주민들한테 인심을 안 일어서 진정서를 다 써줘가지고 감옥사를 별로 안하고 나왔어. 이 사람들은 친일파라 할수 없다고.

부모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러 나가가지고 가족 먹고 살리기 위해서 직장사를 해야하고. 얼마 안 되서 6.25 가 터지고. 말할수 없이 아버지는 옛날에 하인이 있었는데 이북에서 우리 집에서 10 미터 관격으로 보조를 세우는거야. 개미 한 마리 못들어가게. 아버지를 만날 잡아갈려고 하니까. 피란 생활로 집을 떠나야돼. 우리가 별장이 있었는데 아버지랑 나는 별장에 갔지요. 가는데 옷이 보이니까, 흰색이고, 빨간색이고, 검은색이니까 옷통 다 벗고 밭에서 자작하고. 그 당시에 겪은 생활 했는데 그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갔고. 집안이 좋아서 내가 막내여서 결혼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Ahn 2: I can't talk about all my anxieties... At that time, my family had both political power and properties. My uncle was a professor

and my dad worked at a city. He was a sunbi (scholar). After liberation, my older uncle worked as a governor and my younger uncle was a mayor; they were both accused of being Japanese collaborator, and went into prisons. My brothers were Japanese police and also went into prisons. Thankfully, they had the residents' affection; residents wrote a petition for them, and they weren't imprisoned for long.

I participated in independence movement to save my family. In a short time, 6.25 started. There is no way I can express all that I experienced during the war. The northern soldiers guarded our house 10m perimeter, close enough to disallow even ants from entering. We had to leave to take a refuge. We had a villa, and we had to go through the way without our clothes because the colour, white, would mark us against the red. My parents most worried that I may not marry despite my good family. I could attend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I: During the war?

I: 전쟁중이에요?

Ahn 2: 아니 전쟁 전에. 진주 여학교 다닐때 열심히 공부해서. 이과대학 갈려고. 부모님들이 결혼시킬려고. 부담안되게 비용을 내가 다 벌어서. 진주 여학교에서 선생 시험에서 합격하면 양성에서 교직 생활 훈련 받는데 내가 그 때 150 명에서 나 혼자 났어요. 양성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경남 하동에 발령 받아서 간거죠. 그 때 6.25 가 터져서 말할수 없어요. 그래서 뭔가 갖고 있는 사람 다 죽였어요. 그냥 패서 죽였어요.

내가 부모 살리기 위해서, 교직원들이 이북 교육 받으러 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 봤는데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라면서 자원해서 가라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원했죠.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나 하나 가면은 살수 있을것 같아서. 지원한 사람들은 교육도 안 받고 갔죠. 이북을 갈려고 내려가는데 내 울렸어요. 엄마 아빠 보게 해달라고. 근데 안된데요. 걱정하지 말라고. 밤에 내려가는데 이북 군인들이 서달부지 같은데에 뭐를 실고 올라가더라고요. 그 때 뭔지 몰랐는데 알고보니까 후퇴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하동국민학교에 갔더니 안 가도 된다 하는거야. 후퇴하는 길이어서. 이북에서 내려 와서. 옛날에서 밭에서 목화 심는데, 하얗게 꽃이 피는거, 이북에서 다 세는거야. 뺏어갈려고.

Ahn 2: No, before the war. I studied hard in Jinju Girls' School to go to Science university. I earned money to lessen my parents' burden. If you pass the teachers' test, you receive teachers' training at Yangseong and out of 150 I was the only one to be selected. After the training, I went to Kyoungnam Hadong to teach. That was when 6.25 started. Teachers had to receive North education.

People from North told me not to worry and volunteer, if I wanted to save my parents. So I did. People who volunteered to go went without proper education. I cried and begged to see my parents, but I was refused. At night, we were going to go when we saw northern soldiers coming up. I didn't know what it was then but they were retreating. We went to Hadong Elementary and they told us that we didn't have to go up. They were retreating. On the way, they counted cotton flowers so that they could take them all.

I: 힘드셨겠어요.

I: How much you must have suffered!

Ahn 2: 오직하면 저가 지원을 했겠어요.

Ahn 2: Enough to make me volunteer to go.

I: 세번째 질문은요, 그 당시 6.25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I: My third question is: how did you understand 6.25 at the time?

Ahn 2: 인민군들 빨갱이들이 사람들을 그냥 패서 죽이는 정치였어.

Ahn 2: Understand? People from the North, the leftists, their regime was just one for abuses and killings.

I: 그래서 인민군들이 쳐들어 와다고 생각하셨나요?

I: So you considered the war as North invasion?

Ahn 2: 쳐들어 죽이고. 재산 다 뺏어가고, 숟가락 하나도 안 남기고. 반동 친일파 분자라고 개미 하나도 못 들어오게 쫓아내고.

Ahn 2: They abused and killed. They took all my properties, not even leaving one spoon behind. Calling us the enemy and Japanese collaborators, they would not even a single ant near our place.

I: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사셨냐는 건데 이미 대답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 질문은요 6.25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셨는데 어떤 영향이 제일 컸다고 생각하세요? 주변, 이념, 먹고 사는것?

I: Since you have already replied to my next question in your answer to the second question... My next question is: going through your daily life during 6.25 must have been difficult. If you have to pick something that left the most impact on you, what would it be? I can give you a few examples: can you choose between ideological conflicts, fight between residents, and food shortage?

Ahn 2: 그냥 나는.. 아버지 밑에 하인이, 몰래 몰래 먹을걸 줬거든. 하인도 우리같은 반동파에 먹을걸 준다고 바로 패서 죽었지.

Ahn 2: Well for me... We had a servant who sneaked in food for us. He died of beatings for helping the enemy.

I: 주변의 갈등이 그럼 제일 컸다고 생각하세요?

I: Then would you consider as the conflict of your surrounding neighbours as the most intense?

Ahn 2: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살았지... 주변 사람들을 볼수 있어야지.

Ahn 2: The life was so terrible I couldn't see what was happening around me.

I: 아, 그럼 빨갱이들한테서 당한게 제일 컷고 주변 사람들은 잘 몰랐구나. 그럼 전쟁에서요,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월북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주민으로서요, 한국전쟁에서 어떠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I: Ah, then inmin had the most impact on your war experience, and one could not know about fellow villagers. Then during the war, do you remember how you said you volunteered to save your parents? As a civilian, did you believe in your power during the war?

Ahn 2: 완전히 이남 지방 공산군들... 지금도 그렇지만 미군들 하면 큰일나지... 미국 사람들 지금도 감사히 생각해.

Ahn 2: Communists in South were terrible... Without the US, we would have been in big trouble. I still thank the US for it.

I: 그럼 피난해서 북한에 오다고 돌아와서 엄마 아빠 만나고..?

I: Did you get to see your parents after the forced exile?

Ahn 2: 그 기분 말도 못하지. 내 마음이 진심으로 우리나라오는게 아니라 엄마 아빠 살리려 갔기 때문에.

Ahn 2: I can't express all that I felt. I didn't volunteer because I wanted; I did it for my parents.

I: 감사합니다.

I: Thank you.